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광고는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하고, 일단 결단을 내린 후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 우유부단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자기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결단하면 그 결단에 충실하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은 강조합니다.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백성들을 모아 놓고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여호수24,15)하고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당신의 살과 피를 받아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

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요한6,52)하며 논쟁이 생겼고 그들은 결국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부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요한6,60) 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교육에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요한6,67) 하고 물으시며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요한6,68-69) 하고 말한 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세상의 것과 영원한 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단에 최선을 다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사숙고 후 결단을 내리면 최선을 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결단해야 할 때 우유부단하며 가까스로 결단한 후에도 그 선택에 만족하지 못 합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매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은 빈자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는 선교사를 만나면 “다짜고짜로 달라고 해라.”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선교사를 만나자 그는 다짜고짜로 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서슴없이 “이거요?” 하고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먹 크기의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빈자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빈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빈자는 온통 보석을 지키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 했습니다. 오직 보석 옆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보석이 자기를 차지하고 자기는 보석의 초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선교사를 찾아 다이아몬드를 돌려주고 다른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까지 아낌없이 주는 당신의 부유한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단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결단할 때 진정한 자유와 본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중심의 결단, 이는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오늘 화답송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복음 환호송에는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합니다.

정상동 본당 공한영 고스마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거북하다며 떠나갑니다.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에 대한 의혹과 불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생명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본기도

†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여호수아기 24장 1절-2절 15절-17절.18절

안 내 :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이냐고 물으니, 백성들은 주님을 섬기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답합니다.

묵 상 : 우리는 세상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느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선택 앞에서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셨던 기억 때문에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주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 에페소서 5장 21절-32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인들에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해야하며,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신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고 전합니다.

묵 상 :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며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혼인생활은 그리스도적인 의미를 지닌 신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6장 60절-69절

강론 : ‘너희도 떠나가겠느냐?’(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말씀을 듣기 거북하다고 떠나는
많은 제자들을 지켜보며
주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침묵>

미사참례가 기쁘지 않은 우리에게
고백성사의 의무감이 떨떠름한 우리에게
의혹과 불신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사에 바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침묵>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

주님!
저희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6번 ‘찬미노래 부르며’

※ **공소사목 성금**

울진서면공소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90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로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아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9월 1일, 15일, 29일, 10월 13일, 27일, 11월 3일(총 8회)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청년연합회 성지순례

- 일시 : 9월 2일(주일)
- 장소 : 한실교우촌 및 상주 옥터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개인 도시락, 물
- 회비 : 5천원
- 신청마감 : 8월 2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공소(농민사목) 수녀·선교사 연수

- 일시 : 9월 3일(월) 14:30~4일(화) 점심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준비물 : 세면도구, 미사준비, 간편한 복장과 신발
- 신청마감 : 8월 30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 제단체장 모임

- 일시 : 9월 8일(토) 15:00~19:00
- 장소 : 교구청 3층 대회의실
- 대상 : 교구 제 단체장 및 간부

■ 여학생 수도 성소자 성지순례

- 일시 : 9월 9일(주일)
- 장소 : 천호성지, 및 나바위성지
- 출발시간 : 휴천동 07:30/모전동 08:00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미사 준비, 목주

■ 하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 일시 : 9월 9일(주일) 08:30~19:30
- 장소 : 대구대교구 성지순례
- 준비물 : 미사준비, 간편한복장, 운동화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9월 16일(주일)
- 장소 : 한실 교우촌
- 대상 :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 준비물 : 운동화, 편한복장, 미사준비, 목주

■ 순교자 성월 기념

변지안(아녜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다까?”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 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제주문화재단 <고사리> 연극 각본,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흙> <더 라인> <미스스마일> <기담2> 등이 캐스팅 중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2018년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피정

- 일시 : 9월 2일(주일) 10:00~15:30
- 장소 : 가톨릭 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 준비물 : 활동수첩, 목주, 필기도구 월례회의 준비(해당자)
- 회비 : 1인 1만원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치유. 은사세미나

- 일시 : 9월 7일(금) 14:00~9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 수련원
- 회비 : 10만원
- 신청 : 8월 26일(주일)까지 성령봉사회 사무실 010-8964-0958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9장

혼인과 가정의 영성

배타적이지만 자유로운 사랑의 영성

319. 또한 혼인에서 우리는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부부는 도전을 받아들여, 함께 늙어가며, 함께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이러한 확고한 결심은 “부부애의 계약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결심하지 않는 이는 심지어 단 하루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념하여 단순히 율법을 따른다면, 이러한 신의는 영적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든 하느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다시 일어나 주님의 도움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험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부는 저마다 상대방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징과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320. 부부의 사랑에서 부부가 최고의 자유에 이르러 건전한 자율성의 자리가 마련되는 때가 있습니다. 곧, 배우자 각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신 주인, 한 분이신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는 그 누구도 사랑하는 이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영역을 차지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현실주의의 원칙에서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잘 표현한 대로, 개인의 영적 여정은 상대방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곧 오직 하느님의 사랑에만 속한 것을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적 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부부 각자가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한 배타적 공간은, 함께하는 삶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하느님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여 이러한 내적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돌봄과 위로와 격려의 영성

321.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자신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이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출산과 양육으로 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며 이 모든 것을 가정 영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부부는 서로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도전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애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말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말, 눈길, 도움의 손길, 애무, 포용으로 하느님의 위로가 되는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바람은 하느님 꿈의 일부가 되려는 결심, 그분과 함께 꿈꾸려는 결심, 그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결심, 그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모험에 함께 나서려는 결심이입니다.”

322. 가정생활 전체는 자비로운 ‘보살핌’입니다. 우리 각자는 상대방의 삶에 조심스럽게 글과 그림을 남깁니다. 바오로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 먹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이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서는 최고의 것을 이끌어 내려고 그들의 신선한 땅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혼인의 풍요에는 다른 이를 도와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불확실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그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흠송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좋은 것을 심어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키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323.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느님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은 깊은 영적 체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주는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의 존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내주고 다른 모든 것을 잊을 때에만 우리는 그를 위하여 온전한 현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는 우리의 온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범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다가갈 때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며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다음의 질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는 우리가 가정생활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한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유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온유함은 “다른 이들 마음 안에서 사랑받는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다른 이들의 한계에, 특히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에 계속 -



솔뫼성지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솔뫼성지를 다녀왔다. 진작부터 가보고 싶었으나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 망설였던 곳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해안 쪽으로의 여행은 쉽지 않았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1시간이상 단축되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 느껴졌다.

내가 성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김길수 교수의 순교강의를 듣고 나서다.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낸 순교자들의 얘기에 가슴이 먹먹했다. 가혹한 박해 속에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굳건한 신앙심에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났다. 무엇이 신앙의 선조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찾아 가보고 싶었다.

솔뫼성지는 잘 가꾸어져 있었다. 명성에 비해 아담한 규모여서 더 반가웠다. 매년 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인데도 성당조차 조그만 했다. 솔뫼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실감이 돋보이는 십자가의 길 조형물은 성인이 걸어 온 길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출발을 중심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니 생가에 다다랐다.

신부님의 생가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었다. 방 2개에 공간과 부엌이 연결된 ㄱ자형 생가는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마당 오른쪽에 우물과 장독대까지 있어 여느 가정집과 다르지 않았다. 성인을 보며 묵상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건한 모습이 성지를 더 빛나게 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생가에 머무르며 생각에 잠겼다. 지붕에는 새들이 모여 지저귀고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순례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솔뫼는 증조할아버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4대가 살았던 곳이다. 박해를 피해 7세 때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가기까지 신부님은 이곳에서 자랐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솔뫼의 자연과 분위기는 소년 김대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순례자의 눈에 솔뫼는 아늑하고 정겨운, 마치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다.

신부님의 생애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최초의 사제가 되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정작 활동한 시간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한국인 사제의 탄생을 기다려온 신자들의 염원을 생각하면 너무도 짧은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았으니 성인에게도 조금은 아쉽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굳센 믿음 앞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후회도 없었던 모양이다. “여러분은 내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죽으며 이제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천주님을 믿으십시오.” 성인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고 한국 천주교회를 위한 밑알이 되어 지금의 풍성한 결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보면 2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성인이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내 세속적인 생각이었던 셈이다. 정작 성인은 죽음의 순간에도 형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편하게 나를 죽일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고 하니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성지를 찾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일수도 있고 순교자들의 삶을 배우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11곳의 성지가 있으니 가끔은 시간을 내어 성지를 방문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마음이 괴롭거나,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성지순례는 흔들리는 신앙심을 다잡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솔뫼는 내게 그런 성지였다.